

춤추는 이순신!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떴다

동국대 만해광장서 창작뮤지컬 '이순신' 공연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지를 품은 서울 동국대와 불해의 전적지 경남 남해가 만났다.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는 20억 규모의 대형 창작뮤지컬 '이순신-임진왜란편'을 무대에 올린다. 8월 14~15일 통영한산대첩축제 초연 후 제2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개막 축하공연으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연한다. 2009년부터는 매년 4월 이충무공 탄신일을 기해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공연으로 지속될 계획이다. 후속편 '정유재란'은 동국대 영상

대학원과 동국대충무로영상사업단이 영상과 특수효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창작뮤지컬 '이순신'은 2010년 해외진출을 목표로 3년 간 총 50억원이 지원되는 관학협력사업이다. 이윤택 교수(동국대 연극학부) 극본·연출로 극단 연희단거리패와 일본 온데코좌타악그룹이 앙상블 출연한다. 연출가 이윤택과 연극 '화상에서 꿈꾸다'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배우 민영기가 주연을 맡았다. 총 80여명의 출연진이 전통식 거북선과 판옥선을 타고 대형 무대를 누빈다. (02)2260-3869

가연숙 기자



'티베트인의 삶과 구도정신'展 대구 수성아트 갤러리서

수채화와 유화의 중간 성질을 지닌 아크릴 물감. 티베트인의 삶을 담아내기에 모자람도 남침도 없는 그림재료다. 화가 이준일은 오랜 기간 티베트에 머물며 보고 느낀 실경 스케치를 모아 8월 29일까지 대구 수성아트 갤러리서 전시한다.

티베트 성지에서 영감을 받은 신도들의 모습을 아크릴물감과 먹을 활용해 물의 성질을 가진 아라비아고무를 재료로 안료와 혼합한 불투명 기법(파우·Gouache)으로 표현했다. 조강 사원 앞 바코르 광장에서 오체투지하는 순례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았다. 가연숙 기자

삶의 여정 해석하는 방식 엿보기

리씨갤러리서 9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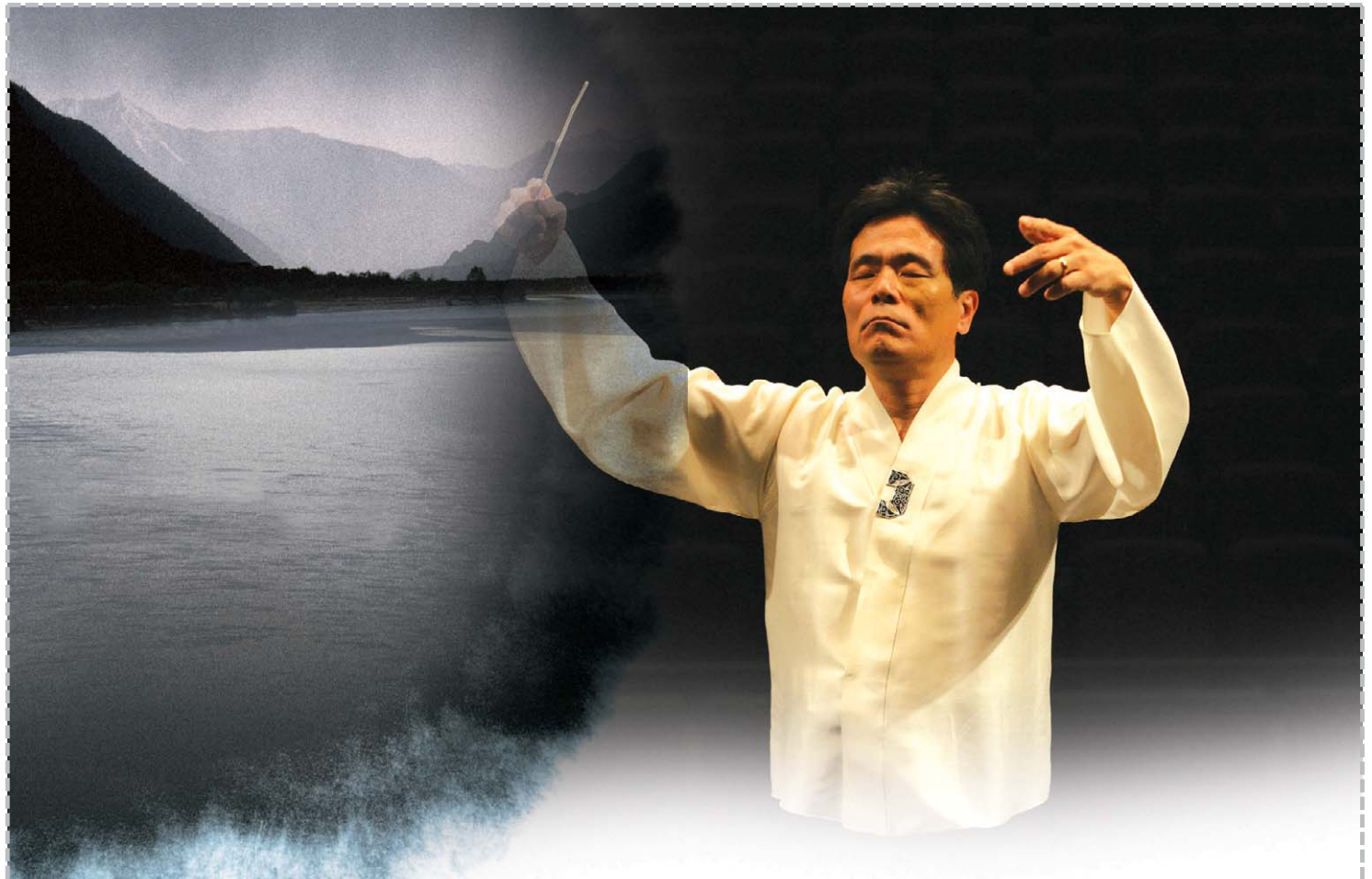
삶이란 시작을 알 수 없는 긴 여정이다. 현생의 거대한 구조 혹은 사회 안에서 겪게 되는 소외와 상실감을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두 작가가 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리씨갤러리에서 9월 10일까지 열리는 '기나긴 여정(Long Day's Journey)'展에서 이들을 만난다. 삶의 긴 여정과 애착을 사진과 소묘라는 서로 다른 예술방식으로 보여주는 전시다.

사진작가 오상택은 현대사회의 물질적 비대환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소외를 이중모순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작품 '과정(Process)'은 현대인의 삶에 묻어있는 현실의 삶과 이상에 대한 동경을 순간 포착

으로 그려낸다. 화가 차소림은 초월의 메시지에 힘겹게 다가가는 자신을 페르소나인 작은 개미로 대치한다. 은유적인 텍스트와 바늘땀의 기호화 속에서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 한다. 절대 가치의 음성을 찾아 헤매는 개미는 진리의 자이를 찾기 위해 갈망하는 과정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는 듯하다.

인간이 개미를 닮았다. 멀리서 보면 캔버스의 얼룩으로 여겨질 정도로 미미하다. 거대한 자연과 기호화의 텍스트 속에서 인간은 긴 여정의 등장인물로 기묘한 어울림을 형성한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기보다 자연과 어울림에 의한 이상적 자유를 갈망하는 방식으로 포섭된다. (02)3210-0467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국립국악관현악단 국가브랜드연주회
9월 5·6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서

예술가 김봉의
넉넉한 흐르네

한국의 대표종교 화해의 바다서 국악관현악 향연

'새벽예불에 다뤄지는 법고(法鼓)·목어(木魚)·운판(雲版) 그리고 범종(梵鐘)은 미혹으로부터 자연의 실상을 견여히 일깨우네.'

전통음악의 재창조와 현대음악의 생명력을 명상음악으로 승화시켜 온 '국악가요'의 선구자 김영동(58·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불교의 '화엄(華嚴) 사상을 담아 평화와 상생을 연주한다. 9월 5·6일 양일간 2회에 걸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황병기) 국가브랜드연주회'에서다.

2008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선보이는 '넉넉한 흐르네'의 테마는 '자비(慈悲)'다. 불교·도교·무교·기독교의 네 줄기 강물이 사랑과 관용의 진리로

화해한다는 의미다. 각각의 종교를 상징하는 대표 국악관현악곡을 위촉, 도교는 박영희가 '낮음과 비움', 무교는 박범훈이 '신맛이' 기독교는 나효신이 '태양 아래'를 연주한다.

김영동의 '화엄'은 1988년 여름 순천 송광사에서 새벽예불을 모시며 얻은 영감의 연장선이다. '걸치레 없는 예불소리'는 그야말로 큰 음악이다'라는 것이 그를 사로잡은 기억이다. 푸른 새벽녘, 태평소와 함께 만물을 깨우는 사물의 연주가 시작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감싸 안는 범종의 울림이 여운을 남길 때 즈음 중성은 경건한 영불의 전주가 되어 '오분향례'와 <반야심경>으로 화엄의 미묘한 법을 장엄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배경에 자리한 자연의 소리다.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음미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에 잠긴다. 작곡가 이준용(한예종 교수)은 "종교라는 네 개의 문고리를 열고 문화를 넘어 음악의 물결을 만든다. 심연의 깊은 곳에서 깊이 울린 국악관현악은 인간과 종교를 아우르는 세찬 흐름"이라며 이번 국가브랜드 연주회의 의의를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네 개의 종교가 음악으로 만나 화해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갖는다는 의미는 남다르다. 황병기 예술감독의 말처럼 "무겁고 의미 있는 종교 주제를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실험은 국악의 높은 예술성과 현재성을 새롭게 이어가는 소중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2)2280-4115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고무신코 만행화

2008년 9월 5일 - 8일까지 한국불교박물관 출품예정

<p>특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p>지압솔리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p>조각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p>건강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p>사계절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p>3-1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p>망사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p>3-1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인) 합장

◆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법사과정 학생 모집

불교지도자 양성 및 포교를 목적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교과목	불교학과(기본)	풍수학과(선택)	역리학과(선택)
◆ 내 용	교리, 의식, 한문	풍수학 이론 및 실제	역리학 이론 및 실제	
◆ 교육기간	1-2년	6개월-1년	6개월-1년	
◆ 교수진	자강 스님, 서진아 스님	모성학 선생 외 2명	청봉선생 외 2명	
◆ 비 고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제반의식	도선국사 이후 풍수대가로서 실제 입증 직강 및 현지 답사	30년 경력 전통 비법 전수	

- ◆ 지방인을 위한 통신반 운영
 - ◆ 전 형: 서류접수(주민등본 및 이력서) 및 면접
 - ◆ 개 강 일: 2008년 9월 8일 (월요일)
 - ◆ 강의시간: 월·목 오후 1시 ~ 6시까지 (학과별 2시간)
 - ◆ 문 의: 031)448-0888~9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사무소 옆(안양역과 명학역 중간)

安養 淨土寺 부설
大宇宙佛法師大學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팬파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